

Weekly Strategy



- Strategist 광병열**
Tel. 368-6132
kbr87690@eugenefn.com
- Junior Strategist 정동휴**
Tel. 368-6646
yes@eugenefn.com
- Junior Strategist 오경진**
Tel. 368-6144
kjoh@eugenefn.com

Weekly Strategy는 다음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 기업이익 발표, 기타 이벤트 등을 통해 단기적인 시장영향력을 가능하고 자 작성했습니다. 중장기 전망과 달리 단기 이슈에 따른 증시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다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전략: 어닝시즌에 따른 신뢰도 테스트 국면

- **추경 통과 과정-어닝시즌 절정 등에 주목** (주간 KOSPI 예상밴드: 1,860~1,940pt)
다음주는 한국 추경예산 국회심의-국내 어닝시즌 절정, 북한 관련 주변국의 외교행보, 미국 경제지표 및 애플-엑슨모빌 실적발표, G20 재무장관 이후 연화 방향성 등이 주요 변수이다. 글로벌 경제지표-국내 기업이익의 신뢰도 확인과정에 따른 변동성 확대 우려는 상존하나,

 - 1) 추경 세출예산 증액 및 조기통과 가능성에 따른 국내 경기부양 기대,
 - 2) G20 재무장관 이후 연화약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
 - 3) 낮아진 기업이익 컨센서스에 대한 충족 가능성

등을 통해 낙폭과대한 국내 증시는 저점형성(KOSPI 1,900pt는 12개월 PER 8배)을 시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화약세 유지에 따라 컨센서스 충족 가능성이 큰 IT와 관련 부품주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을 권한다. 연화약세가 둔화될 경우 자동차 업종도 Bottom Fishing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 **매크로: 미국 경제지표의 신뢰도 확인 과정**
2013년 1/4분기 미국 GDP는 전분기대비 3.0%(연율) 증가해 2012년 4/4분기의 0.4%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 낮았던 4/4분기 경제성장률로 인한 지지 효과와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투자(구조투자+주택투자) 확대가 1/4분기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본 경제서프라이즈 지수를 제외하면 전세계 경제서프라이즈 지수는 하향트렌드가 지속 중이다. 미국의 경우 3월말 이후 하락 반전했는데, 여타지역 대비 1~2개월 늦게 하락사 이클이 개시 되었고, 2개월 만에 처음으로 0선을 하회하고 있어 미국 경제지표의 신뢰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 **1Q13 어닝시즌: 애플 역풍 vs. 국내 IT기업의 선전 여부**
미국 1Q13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은 4/17일 기준 65.6%로 시작일인 4/8일 70.8%대비 소 폭 낮아졌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어닝서프라이즈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어닝시즌 초반에는 변동성이 컸으나, 점차 평균값인 67% 수준으로 수렴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미국 IT업종의 1Q13 순이익이 -5.0%(12월말 +2.7%)로 하향조정된 점은 어닝시즌 초중반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특히 애플의 1분기 실적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동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경계요인이다.

국내 기업실적 전망치는 소재-산업재를 중심으로 큰 폭의 하향 조정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실적 신뢰도는 현저하게 약화된 상황이다. 다만 다음주에는 주로 IT-자동차 등 수출업종의 실적발표가 집중돼, 일정부분 소재-산업재의 부진을 희석시킬 것이다. 애플의 실적전망 부진과 차별화된 국내 IT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발표 여부에 주목한다.



다음주 전략: 어닝시즌에 따른 신뢰도 테스트 국면

추경 통과 과정-어닝시즌 절정 등에 주목

[주요 일정]

- (국내) 추경, 국회 상임위별 심사 및 예결위에서 예산안 확정 (주초)
- (일본) BOJ금정위 (26일)

[Strategy Insight]

- (추경예산 국회통과 과정) 4월 16일 공개된 추경안에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7.3조원의 세출 추경, 즉 경기대응용 추경규모가 제시됨. GDP대비 0.57% 수준으로 2002년 이후 평균수준인 0.40%를 초과하는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함. 한편,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이 수준을 2~4조원 확대시키는 논의에 착수함. 만약 확대될 경우 기금을 포함한 세출추경은 9.3~11.3조원으로 GDP대비 0.73~0.88% 수준이 됨. 추경효과로 인한 경기진작 효과는 원안보다 개선될 수 있음 (도표 1 참조)
- 현재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어려운 관계로 5월 3일(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6일) '원포인트 본회의' 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3일 추경이 처리될 경우 과거 평균 수준인 38일보다 빠른 통과가 성사되는 것으로 국내 경기부양 기대는 커질 것으로 예상 (도표 2 참조)
- (북한 리스크) 전주 미사일 발사 위협 등으로 고조됐던 북한 리스크의 시장 영향력은 감소 중임.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북한은 대화하려면 먼저 대북제재를 철회해야한다고 밝히는 등 강경 자세는 유지하나, 한편으론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는 등 기존 대결구도보다는 대화재개와 관련한 조건 등을 물밑 협상하는 단계로 이전된 것으로 평가함
- 다음주 중국 6자회담 대표가 대북 협의 차 미국 방문. 최근 미국 케리장관은 "중국은 북한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며 "그 만큼 중국과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힘. 이어 "중국도 미국과 협조할 의지를 내비쳤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 이 부분을 논의했고 과거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게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이는 등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G20 재무장관 회의) 4월 18~19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서 일본의 공격적 엔화 약세 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번 회의와 같이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회의에 앞서 공개된 공동성명 초안에서는 "통화가치 하락 경쟁을 자제하고, 환율을 정책의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한다" 는 엔저 견제를 암시하는 문구가 삽입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미국 재무장관인 제이콥 루는 17일 연설을 통해 'G20은 근린궁핍화 전략(beggar thy neighbor)' 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미국의 환율조작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일본을 경계대상으로 선정할 점을 통해 금번 회의에서 일본의 엔화약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가 일정부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유럽의 신용지표) 유럽 신용지표는 안정을 유지함. 자금시장의 조달금리를 나타내는 유로 Ted spread 는 전주 수준에서 낮은 레벨을 유지 중이고, 유럽 CDS프리미엄을 지수화한 iTraxx 지수는 전주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안정적인 레벨임. 또한, 스페인-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다만, 어닝시즌에 돌입한 프랑스 은행주 주가는 전주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도표 3~6 참조)
- (결론) 글로벌 경제지표-국내 기업이익의 신뢰도 확인과정에 따른 변동성 확대 우려는 상존하나, 1) 추경 세출예산 증액 및 조기통과 가능성에 따른 국내 경기부양 기대, 2) G20 재무장관 이후 엔화약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 3) 낮아진 기업이익 컨센서스에 대한 총족 가능성 등을 통해 낙폭과대한 국내 증시는 저점형성(KOSPI 1,900pt는 12개월 PER 8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함



도표 1 추경 규모 추이: 경기대응 추경 GDP 대비 0.57% → 0.73~0.88% 증액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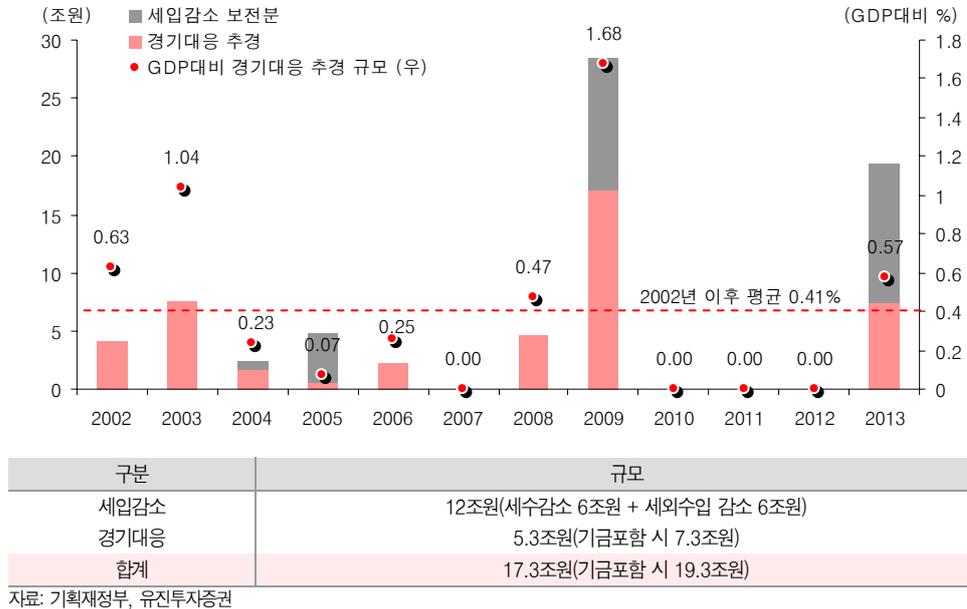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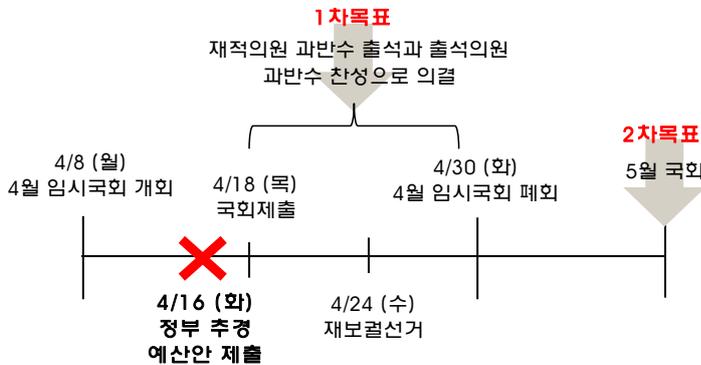


도표 2 국회 일정과 추경 의결 가능성: 빠르면 5월 3일 통과가능성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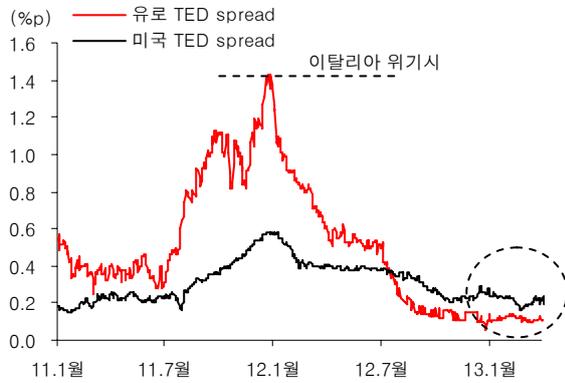


	2003.6월	2009.4월
규모	4.2조원	28.4조원
적자 국채	-	35조원
추경 사유	경기진작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국회 통과 기간 (policy lag)	41일	31일
쟁점	적자재정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 및 추경규모와 조달방법	'슈퍼 추경' 졸속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자료: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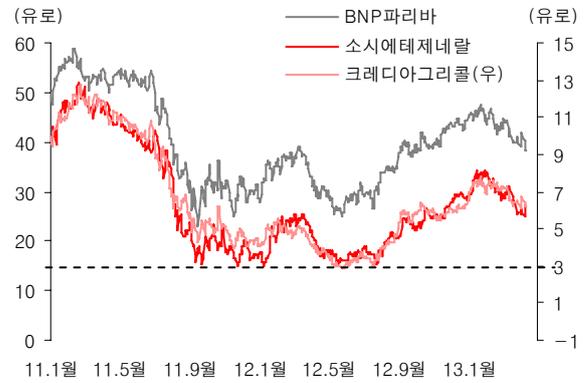


도표 3 TED 스프레드
: 미국-유럽, 여전히 안정적인 레벨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TED스프레드 = Libor 3개월물 - 국채 3개월물

도표 4 프랑스 주요은행 주가
: 은행 주가는 지난주 대비 하락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5 유럽 주요국의 국채 10년물
: 이탈리아-스페인 하락 안정 지속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6 iTraxx 지수
: 지난 주 대비 상승했으나 안정적인 레벨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매크로: 미국 경제지표의 신뢰도 확인 과정

[주요 일정]

- (미국) 3월 기존주택판매 (22일)
3월 신규주택판매 (23일)
3월 내구재주문 (24일)
4월 미시건소비심리지수 확정치, 1Q13 GDP (이상 26일)
- (한국) 1Q13 GDP (25일)

[Strategy Insight]

- (미국 3월 기존주택 및 신규주택판매) 3월 미국 기존주택판매는 전월비 0.5% 증가한 501만호(연율), 신규주택판매는 전월비 2.2% 증가한 42만호(연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택 가격 상승이 함께 나타나면서 주택판매 증가세를 뒷받침 (도표 7 참조)
- (미국 4월 미시건소비심리지수 확정치) 4월 미시건 소비심리지수 확정치는 73.9로 월초에 발표된 잠정치 72.3에 비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예상. 시퀘스터 발동과 3월 고용부진 발표에 따른 소비심리의 과장된 위축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3월의 78.6은 크게 못 미치는 낮은 수준 유지할 전망 (도표 8 참조)
- (미국 1Q GDP) 2013년 1/4분기 미국 GDP는 전분기대비 3.0%(연율) 증가해 2012년 4/4분기의 0.4%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컨센서스 형성. 낮았던 4/4분기 경제성장률로 인한 기저효과와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투자(구조투자+주택투자) 확대가 1/4분기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예상. 다만, 시퀘스터 발동에 따른 3월 지표 부진이 경제성장률 상승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나, 이미 연초에 생산 및 투자, 소비 등이 크게 개선된 바 있어 1/4분기의 경기 회복세를 훼손시키지 못할 전망 (도표 9 참조)
- (한국 1Q GDP) 2013년 1/4분기 한국 경제성장률 속보치는 전년동기비 1.2% 상승해 2012년 4/4분기의 1.5%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시장 컨센서스 형성. 이는 6분기 연속 하락한 수준. 설비 및 건설투자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인해 전년동기비 경제성장률이 3분기 연속 1%를 기록한 것으로 예상.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은 확대된 것으로 예상되나 높은 재고로 인해 생산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됨 (도표 10 참조)
(당사 이코노미 프리뷰 참조)
- (경제서프라이즈 지수) 일본 경제서프라이즈 지수를 제외하면 전세계 경제서프라이즈 지수는 하향트렌드가 지속 중임. 미국의 경우 3월말 이후 하락 반전했는데, 여타지역 대비 1~2개월 늦게 하락사이클이 개시되었고, 2개월 만에 처음으로 0선을 하회하고 있어 미국 경제지표의 신뢰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도표 11 참조)
- 중국과 EM의 경제서프라이즈 지수도 전주 대비 하락하며 4주째 하락세를 이어감. 특히 중국의 경제서프라이즈 지수는 0선을 하회함 (도표 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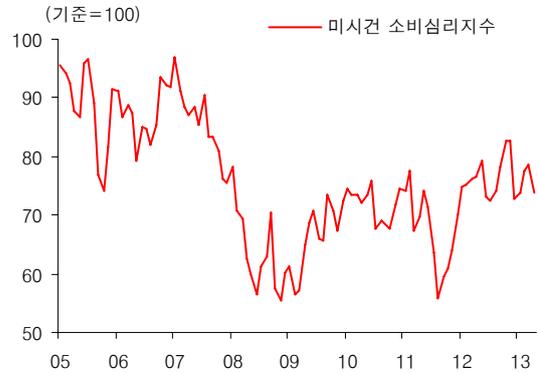


도표 7 미국 3월 기존주택 및 신규주택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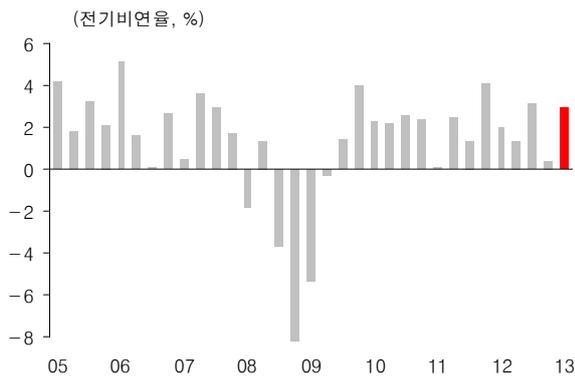
자료: 미 주택판매자협회, 미 상무부, 유진투자증권

도표 8 미국 4월 미시건소비심리지수 확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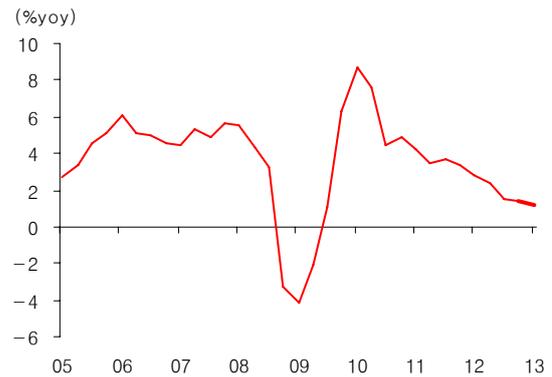
자료: 미시건대, 유진투자증권

도표 9 미국 1Q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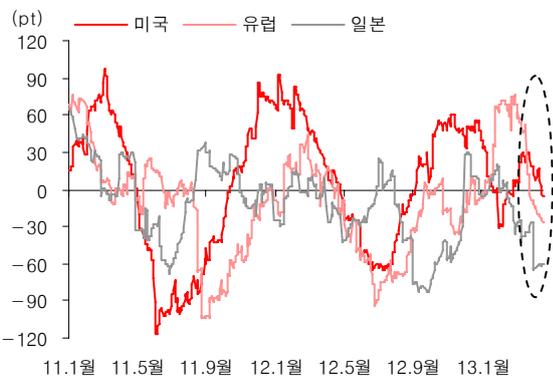
자료: 미국 상무부, 유진투자증권

도표 10 한국 1Q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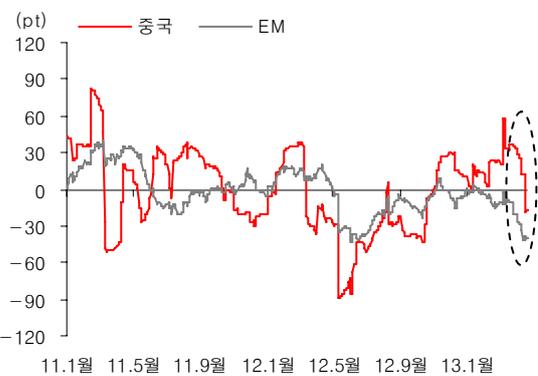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주: 예상치 포함. 이하 동일

도표 11 선진국 경제서프라이즈 지수 : 일본 소폭 상승, 미국-유럽 하락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12 신흥국 경제서프라이즈 지수 : 중국-EM 하락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1Q13 어닝시즌: 애플 역풍 vs. 국내 IT기업의 선전 여부

[주요 일정]

- (미국) 캐터필러 (22일), 애플, AT&T (이상 23일), P&G (24일), 엑스 모빌 (25일), 셰브론 (26일)
- (한국) LG디스플레이 (22일), LG전자, SK하이닉스 (이상 24일), POSCO, 현대차 (이상 25일), KB금융 (26일)

[Strategy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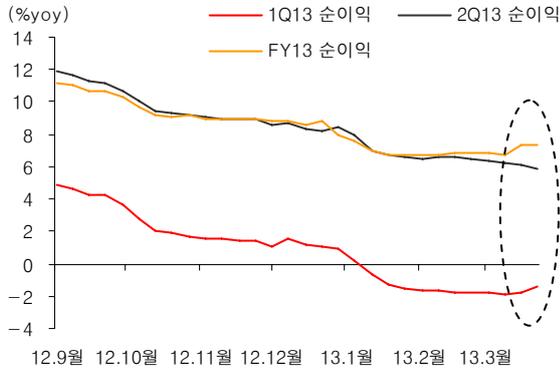
- (미국 분기 및 연간실적 전망) 미국 S&P500 구성종목군의 1Q13 블룸버그 순이익 전망치(4/12일 기준)는 전년동기비 -1.4%(전주 -1.8%, 12월말 +1.5%)로 전주대비 상향 조정됨. 다만 2Q13는 전년동기비 +5.9%(전주 +6.1%, 12월말 +8.7%)로 전주에 이어 하락함. 한편 FY13는 전년동기비 +7.3%(전주 +7.3%, 12월말 +8.8%)로 전주와 같은 수준 유지함 (도표 13 참조)
- (미국 1Q13 어닝시즌) 미국 1Q13 어닝시즌은 8일 알코아를 시작 이후로 2주간 진행됨. 1Q13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은 4/17일 기준 65.6%로 시작일인 4/8일 70.8%대비 소폭 낮아짐. 그러나 2011년 이후 어닝서프라이즈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어닝시즌 초반에는 변동성이 컸으나, 점차 평균값인 67% 수준으로 수렴하는 특징을 나타냈음 (도표 18 참조)
- 미국 IT업종의 1Q13 순이익이 -5.0%(전주 -4.1%, 12월말 +2.7%)로 하향조정된 점은 어닝시즌 초반 반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함. 애플의 1분기 실적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경계요인임 (도표 14, 19~23 참조)
- (국내 1Q13 어닝시즌) 국내 기업의 1Q13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주대비 -0.7% 하락함. 세부 업종별로는 유틸리티(+5.6%)가 큰 폭으로 상향조정되고 정유(+0.2%) 역시 소폭 상향되었지만 그 외 업종은 전반적으로 하향조정됨. 운송(-5.9%), 기계(-3.8%), 제약바이오(-3.1%), 통신(-3.1%) 등은 부진한 하향 조정 영역에 머물러 있음 (도표 15 참조)
- 국내 기업실적 전망치는 소재-산업재를 중심으로 큰 폭의 하향 조정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실적 신뢰도는 현저하게 약화된 상황임. 다만 다음주에는 주로 IT-자동차 등 수출업종의 실적발표가 집중돼, 일정부분 소재-산업재의 부진을 희석시킬 것임. 애플의 실적전망 부진과 차별화된 국내 IT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발표 여부에 주목함 (도표 16~17, 23~28 참조)

[Portfolio Idea]

- (미국 섹터) 1Q13 순이익 전망치(4/12일 기준)는 금융이 +1.6%(전주 -1.7%, 12월말 -1.9%)로 상향 추세 지속되며 상승 전환함. 에너지는 -5.9%(전주 -6.3%, 12월말 -4.9%)으로 전주대비 상승했으나, 반면 IT -5.0%(전주 -4.1%, 12월말 +2.7%), 소재 +0.1%(전주 +0.9%, 12월말 +8.3%), 경기소비재는 +1.6%(전주 +2.1%, 12월말 +7.4%)은 전주대비 다소 하락함 (도표 14 참조)
- (국내 섹터) 세부적으로는 금주 한국전력의 실적전망 상황이 유틸리티 업종 실적 전망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반면 대부분의 업종의 기업 실적이 하향조정 된 가운데 특히 항공, 운송 해운 등 경기민감 업종의 하향이 지속되고 있음 (도표 15~17 참조)
- (결론) 원화약세 유지에 따라 컨센서스 총족 가능성이 큰 IT와 관련 부품주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을 권함. 또한 엔화약세가 둔화될 경우 자동차 업종도 Bottom Fishing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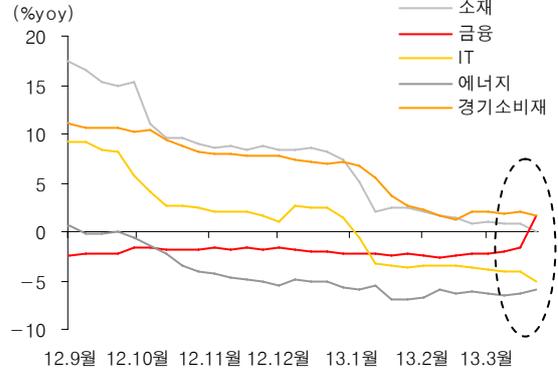


도표 13 미국 분기별 순이익 전망
: 1Q13-FY13 전주대비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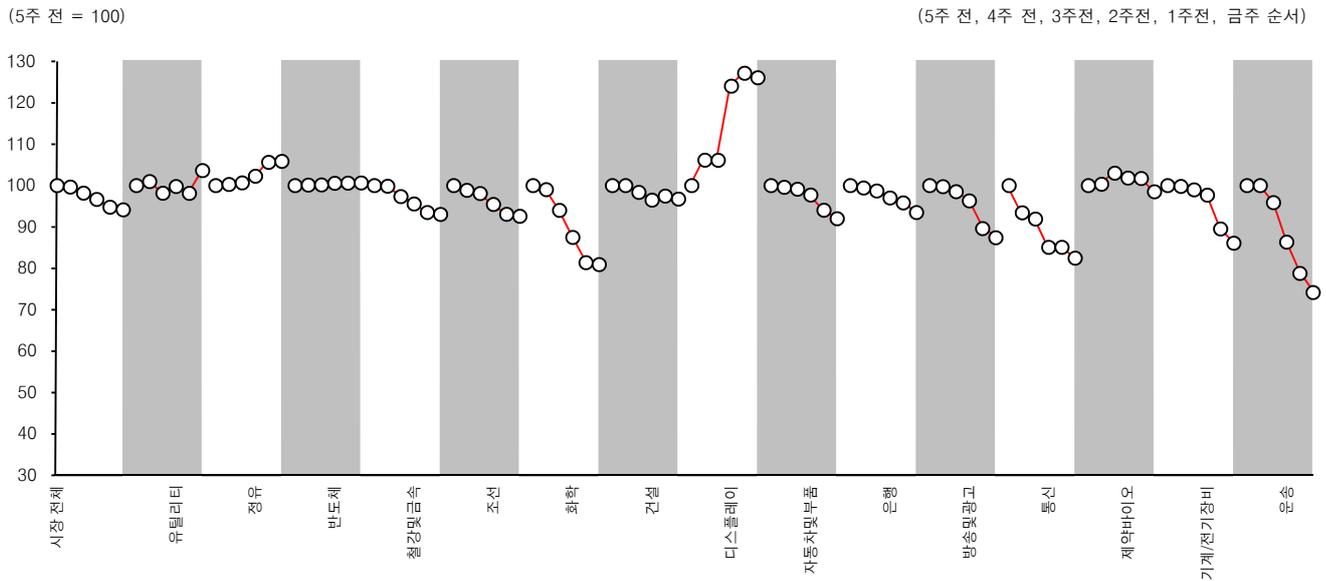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14 미국 1Q13 업종별 순이익 전망
: 금융 큰 폭 상향, IT-소재 하향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15 국내 1Q13 업종별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추이: 유틸리티 큰 폭 상향, 운송-기계-제약-통신 하향



자료: Quantwise, 유진투자증권

주: 유니버스는 KOSPI+KOSDAQ 시가총액 5000억 이상 + 영업이익의 추정치 존재하는 190개 종목으로 구성. 업종순서는 전주대비 영업이익의 상향조정 기준 실적 발표한 기업은 실제치 반영



도표 16 1Q13 영업이익의 추정치 Big Mover (상위)

Code	Name	시장구분	업종	1Q13 영업이익 (억원)			전주대비
				5주 전	1주 전	금주	
A015760	한국전력	KS	유틸리티	10,827	10,719	11,916	11%
A000880	한화	KS	지주회사	801	801	866	8%
A097230	한진중공업	KS	조선	153	134	141	5%
A091700	파트론	KQ	IT하드웨어	254	255	267	5%
A035760	CJ오쇼핑	KQ	유통	384	365	379	4%
A001630	종근당	KS	제약바이오	151	150	155	3%
A036570	엔씨소프트	KS	IT소프트웨어	410	412	425	3%
A114090	GKL	KS	레저및오락	383	393	405	3%

자료: Quantivise, 유진투자증권

도표 17 1Q13 영업이익의 추정치 Big Mover (하위)

Code	Name	시장구분	업종	1Q13 영업이익 (억원)			전주대비
				5주 전	1주 전	금주	
A020560	아시아나항공	KS	항공	240	94	-110	-217%
A003490	대한항공	KS	항공	305	-519	-883	-70%
A028670	STX팬오션	KS	운송	-108	-197	-277	-41%
A011200	현대상선	KS	해운	-429	-600	-811	-35%
A051370	인터플렉스	KQ	IT하드웨어	84	-17	-22	-29%
A130960	CJ E&M	KQ	방송및광고	106	37	28	-25%
A096530	씨젠	KQ	제약바이오	47	47	39	-18%
A034120	SBS	KS	방송및광고	15	-30	-35	-15%
A117930	한진해운	KS	해운	8	-244	-280	-15%
A073240	금호타이어	KS	자동차및부품	1,136	1,042	900	-14%
A086900	메디톡스	KQ	제약바이오	49	49	43	-12%
A042670	두산인프라코어	KS	기계/전기장비	1,120	1,066	952	-11%
A112040	위메이드	KQ	IT소프트웨어	98	58	52	-10%
A010060	OCI	KS	화학	161	111	101	-9%
A023160	태광	KQ	기계/전기장비	141	125	115	-8%
A161890	한국콜마	KS	화장품	60	63	58	-8%
A006280	녹십자	KS	제약바이오	216	209	193	-8%
A086790	하나금융지주	KS	은행	5,219	5,118	4,735	-7%
A019680	대교	KS	교육출판	134	134	124	-7%
A002380	KCC	KS	화학	612	600	558	-7%
A010520	현대하이스코	KS	철강및금속	1,036	913	856	-6%
A000270	기아차	KS	자동차및부품	8,641	7,550	7,078	-6%
A103140	풍산	KS	철강및금속	369	293	276	-6%
A008770	호텔신라	KS	레저및오락	215	151	142	-6%
A012630	현대산업	KS	건설	443	430	405	-6%
A000120	CJ대한통운	KS	운송	289	173	164	-5%
A017670	SK텔레콤	KS	통신	5,332	4,686	4,471	-5%

자료: Quantivise, 유진투자증권



도표 18 분기별 미국기업 어닝서프라이즈 비율

	1Q11	2Q11	3Q11	4Q11	1Q12	2Q12	3Q12	4Q12	1Q13
어닝시즌 1주차	71.4	71.4	70.0	51.9	80.0	61.5	55.6	68.0	70.8
2주차	69.6	73.9	66.7	60.3	77.9	65.3	64.8	62.8	65.6
3주차	71.5	75.2	70.6	59.9	76.1	67.1	60.0	66.0	
4주차	68.6	71.8	69.8	59.7	68.8	66.9	63.4	67.4	
5주차	67.4	70.9	69.1	63.5	67.3	68.2	64.2	69.4	
6주차	67.2	70.8	69.5	64.2	67.0	68.1	64.6	68.5	
7주차	67.4	71.3	69.3	63.5	67.3	66.9	64.4	68.9	
8주차	67.8	71.4	69.0	62.9		66.5		68.8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19 캐터필러 순이익 컨센서스(22일)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0 애플 순이익 컨센서스(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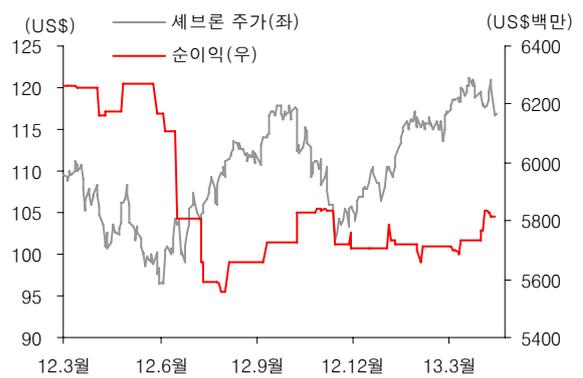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1 엑슨 모빌 순이익 컨센서스(25일)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2 셰브론 순이익 컨센서스(26일)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3 LG디스플레이 순이익 컨센서스(22일)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4 LG전자 순이익 컨센서스(24일)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5 SK하이닉스 순이익 컨센서스(24일)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6 POSCO 순이익 컨센서스(25일)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7 현대차 순이익 컨센서스(25일)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8 KB금융 순이익 컨센서스(26일)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9 다음주 (4/22~4/26) 주목할 경제/증시 일정

	22일(월)	23일(화)	24일(수)	25일(목)	26일(금)
주요 경제지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3월 기준주택판매 (C: 5.01M, P: 4.9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3월 신규주택판매 (C: 420K, P: 411K) 중국 4월 HSBC Flash 제조업 PMI (P: 51.6) 유로 3월 제조업 PMI 잠정치 (P: 4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3월 내구재주문 (C: -2.6%mom, P: 5.6%m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1Q GDP (C: 0.4%qoq, P: 0.3%qoq)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4월 소비자심리지수 (P: 104) 미국 4월 미시건소비심리지수 확정치 (C: 74.2, P: 72.3) 미국 1Q GDP 속도치 (C: 3.0%, P: 0.4%)
기업실적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캐터필러 (C: 1.40, P: 1.46) LG디스플레이 (C: 145.0, P: 58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플 (C: 10.07, P: 13.81) AT&T (C: 0.64, P: 0.44) 듀폰 (C: 1.53, P: 0.11) 코치 (C: 0.81, P: 1.23) 삼성테크윈 (C: 18.1, P: 41.4) LG생활건강 (C: 143.0, P: 8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P&G (C: 0.96, P: 1.22) 포드 (C: 0.38, P: 0.31) 보잉 (C: 1.49, P: 1.28) SK하이닉스 (C: 214.8, P: 70.1) LG전자 (C: 288.2, P: 127.4) LG이노텍 (C: 8.8, P: 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엑슨 모빌 (C: 2.02, P: 2.00) 퀄컴 (C: 1.17, P: 1.26) 3M (C: 1.65, P: 1.41) 스타벅스 (C: 0.48, P: 0.57) UPS (C: 1.01, P: 1.32) POSCO (C: 836.8, P: 633.1) 현대차 (C: 1,921, P: 2,858) 삼성전기 (C: 119.6, P: 145.0) SK이노베이션 (C: 584.5, P: 210.4) LG상사 (C: 68.9, P: 6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브론 (C: 3.06, P: 2.98) KB금융 (C: 594.1, P: 327.0) 삼성SDI (C: 17.7, P: 0.7) 기아차 (C: 732.7, P: 404.2) 현대위아 (C: 138.4, P: 165.6) 현대모비스 (C: 780.7, P: 820.7)
Macro & Market Ev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경, 국회 상임위원 심사 및 예결위에서 예산안 확정 (주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4월 일본은행 금정위 (0.10%)

자료: Bloomberg, Quantiwise, 각종 언론자료 취합

주: 일정은 현지시간 기준임, C = 컨센서스, P = 전기(전월)치임. 밑줄은 중요도가 높은 항목임
미국 실적은 주당 순이익 기준(달러), 한국 실적은 영업이익(십억원)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